



##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 개인의 선호도 변화 그리고 군소후보의 쇠퇴

Preference Change, Strategic Voting, and the Abandonment of Third Place Candidates

---

저자 (Authors)	최정욱 Choi Jungug
출처 (Source)	<a href="#">국제정치논총 46(4)</a> , 2006.12, 223-240 (18 pages) <a href="#">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6(4)</a> , 2006.12, 223-240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국제정치학회</a>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1003547">http://www.dbpia.co.kr/Article/NODE01003547</a>
APA Style	최정욱 (2006).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 개인의 선호도 변화 그리고 군소후보의 쇠퇴. 국제정치논총, 46(4), 223-240.
이용정보 (Accessed)	건국대학교 203.252.179.223 2015/10/19 18:2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 개인의 선호도 변화 그리고 군소후보의 쇠퇴\*

최 정 욱  
(건국대학교)

## < 차례 >

- |  |                                   |
|--|-----------------------------------|
| I. 서론  | 1. 1992-1996 미국 대통령 선거와 데이터       |
| II. 단순다수결제 아래서의 군소후보의 쇠퇴: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 대(對) 선호도의 변화 | 2. 군소후보의 쇠퇴에서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와 선호도 변화 |
|  | III. 결론: 요약과 함의                   |

· 주제어: 전략적 투표, 제도, 선호도, 합리적 선택이론, 역사적 제도주의, 미국선거 strategic voting, preferences, institutions, rational choice theor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merican elections

## 【한글초록】

선거제도와 뒤베르제의 법칙에 관한 기존의 문헌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던 문제는 선호도 변화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단순다수결제라는 선거제도는 행태의 변화인 전략적 투표를 야기하고 이 결과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행태의 변화만이 아니라 선호도 변화도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기존의 뒤베르제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선호도변화와 행태변화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 글은 1992년과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페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단순다수결제 아래서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 변화가 어떻게 통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 결과 우리는 미국선거제도 아래서 군소후보가 겪는 제도적인 불이익으로 인하여 군소후보 지지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유인을 갖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호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전략적 투표율 자체는 하락하는 반면에 기존의 선호도를 변경하는 군소후보 지지자들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은 2006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논문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 I. 서론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출발한 합리적 선택이론이 정치적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경제현상과는 구별되는 정치현상이 갖는 고유한 특징들이 뚜렷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개개인의 효용함수만을 가지고는 정치영역에서 집합적 결과들을 바로 도출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개개인의 효용함수만을 가지고는 사회적인 균형을 도출해내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도출하더라도 하나의 균형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sup>1)</sup> 이것은 집합적 결과를 방법론적인 개인주의의 시각으로 설명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 이러한 한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그 자체가 기존 정치학에 대한 혁명적인 기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개개인의 선호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치적 결과를 설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제도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여기서 제도는 개개인의 선호도와 집합적 균형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제도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사회적 균형이 존재할 때 그것을 가능한 하나의 균형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 균형이 아예 없을 때 하나의 균형이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한다.

비록 합리적 선택이론이 이렇게 제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인과적 설명에서 개개인의 선호도가 제도보다 우선한다는 기본전제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신제도주의인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대전제인 방법론적인 개인주의, 즉 개개인의 선호도가 갖는 인과론적인 우위를 부인한다. 그에 따르면, 개개인의 선호도 그 자체가 제도에 의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는 사후적으로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개개인의 선호도와 제도 그리고 그 두 개의 변수가 결합하여 나오는 최종 산물로서 사회적 균형이라는 3가지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와 그 결과물로서의 정당의 수에 관한 논쟁이다. 전략적 투표라는 용어 자체가 개개인의 선호도를 전제를 하는 것이고 듀베르제의 균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은 선거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당의 수라는 사회적인 균형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전략적 투표를 중심으로 한 듀베르제의 균형에 관한 연구는 선호도, 제도와 사회적 균형이라는 세 가지 문제의 관계에 관한 전형적인 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Peter Ordeshook, "The Emerging Discipline of Political Economy," in James E. Alt and Kenneth A. Shepsle (eds.),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9-30. 합리적 선택이론에 관한 최근의 국내연구로는 이정진 외, 『공공선택의 이론과 응용』(서울, 불명, 2006)을 참조.

2)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einmo Sven,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7-10.

물론 전략적 투표에 관한 글이 모두 정당의 수나 듀베르제의 균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만 그러한 것이고, 순수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투표에 관한 연구는 정당체계론과는 무관한 측면이 있다. 즉, 그것은 다만 사회적 선택 이론(social choice theory)의 일부분으로서 연구되어 왔다.<sup>3)</sup> 사회적 선택이론은 개 개인의 선호도가 민주적인 다수결제도와 결합할 때 사회적 균형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순환구조(circularity)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여 왔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우리의 주 관심사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듀베르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 투표의 문제를 다룬다. 이미 이론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때 단순다수결제 또는 1인1투표 소선거구제 아래서의 선거에서는 전략적 투표로 인하여 양당제가 나타난다는 것이 듀베르제의 균형이론 또는 법칙이다.<sup>4)</sup>

지금까지 전략적 투표와 듀베르제의 균형에 관한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한 연구는 소선거구제와 양당제의 상관관계 여부에 초점을 두어 왔고 상대적으로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연결하는 인과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와 검증에는 소홀하였다.<sup>5)</sup> 이 결과 여전히 다른 요소에 비해서 선거제도가 과연 양당제의 출현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인과과정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인 선호도와 제도의 문제에 비추어 보면, 과연 선호도 구조와 관계없이 오로지 소선거구제만 있다면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상위 2개 정당에게만 투표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듀베르제에 따르면, 승산이 없는 제3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자들은 반복적으로 투표할 때 자신의 선호를 그대로 안 나타내고 차선의 선호에 따라서 투표하며 이 결과 제3의 정당은 소멸하고 양당체제가 성립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3 정당의 득표율 저하가 유권자들 선호도가 변화한 결과인지 아니면 선호도는 불변한데 전략적 투표율이 증대한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다.

소수정당의 쇠락 자체에 관심이 있고 인과과정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면 소수정당의 소멸이 지지율의 하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투표율의 증대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듀베르제나 그 뒤의 전략적 투표 연구자들이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과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말로 인과과정을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제3 정당의 쇠퇴가 선호도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전략적 투표율 그 자체의 변화 때문인지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3) John Craven, *Social Choice: A Framework for Collective Decisions and Individual Judg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s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Methuen & Co. Ltd. 1954).

5) Gary Cox,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Rein Taagepera and Matthew S. Shugart,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Douglas Ra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원래 듀베르제의 법칙에서는 선호도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전략적 투표율의 증대만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지만, 보다 정확한 인과과정은 소선거구제의 도입=> 전략적 투표 실시=> 소수정당 후보의 패배=> 전략적 투표율의 증대=> 소수정당의 쇠퇴 이런 순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의 도입=> 전략적 투표 실시=> 소수정당 후보의 패배=> 미온적인 소수정당 지지자의 선호도 변화와 이탈=> 강성 지지자의 선호도 고수=> 전략적 투표율의 하락=> 소수정당의 쇠퇴 이런 순서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수 정당의 쇠퇴의 원인은 전략적 투표율이 증대하였거나 사표방지 심리 투표자의 수가 증대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호도 구조의 변화와 사표방지 심리 투표자의 감소 때문이다. 시간에 따라서 전략적 투표자의 선호도가 변화하고 남아있는 소수정당 지지자들은 더욱 강경화하여 소수정당은 점점 더 대중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선호도의 변화와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라는 두 개의 인과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1992년과 199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로스 페로(Ross Perot)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본다. 여기서 미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은 결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행태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행태에 관한 연구라면 다른 많은 글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1992년과 1998년 선거를 다룰 필요도 없다. 이미 10년이 지난 이야기다. 지금까지 전략적 투표에 관한 글들이나 후보자 선택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별도로 많이 존재하지만 선호도의 변화와 전략적 투표의 변화 간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연구는 없다고 본다.<sup>6)</sup> 또한 그런 문제를 다루려면 동일후보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자료가 1992년과 1996년 페로를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뿐이다. 비록 관찰수가 작아서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패널자료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 변화를 듀베르제의 법칙의 인과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비교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제3절에서는 이 논문을 요약하고 이론적 시사점을 검토하면서 마무리 한다.

## II. 단순다수결제 아래서의 군소후보의 쇠퇴: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 대(對) 선호도의 변화

### 1. 1992-1996 미국 대통령 선거와 데이터

이 절은 단순다수결제도 아래서 전략적 투표율과 개인의 선호도가 통시적으로(over time)

6) 전략적 투표 자체에 관한 연구의 예로는 조성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당 후보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2호(2000), pp.301-321; Jungug Choi, “Strategic Voting and the Effective Number of Presidential Candidates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7-4(December 2003), pp.191-208. 미국 선거 연구, 특히 1992년과 1998년 선거 연구들은 각주 8번을 참조.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를 1992년과 1996년 두 번의 연속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아본다. 구체적으로는 1992년과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탕으로 수집한 미선거연구회(National Election Studies) 데이터를 사용한다.<sup>7)</sup> 이 데이터의 성격이나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글의 독자들은 두 번의 선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sup>8)</sup>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그 데이터와 두 번의 선거에 관해서는 아주 간단히 언급하도록 한다.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패널데이터라는 것 이외에도, 그 두 번의 선거에서 동일한 인물, 즉 페로가 3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는 제3의 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아주 적합한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다른 제3의 대통령 후보와 달리, 1992년 페로는 전체 선거 인구를 끌고루 잘 대표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편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전혀적으로 말하면, 제3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제한된 특정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은 경향이 있다. 1968년 왈러스(George Wallace)는 남부의 인종분리주의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1980년의 앤더슨(John Anderson)은 자유주의적인 공화당원(liberal Republicans)으로부터 주로 지지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페로는 이와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집단으로부터 표를 얻어내었다. 그는 미시시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적어도 10분의 1의 표를 획득하였으며, 비슷한 비율의 지지를 모든 지역에서 획득하였다.”<sup>9)</sup>

1992년과 1996년 미선거연구회(NES) 데이터 중에서, 여기서는 두 개의 여론 조사에서 동일한 응답자를 설문하여 얻은 패널 데이터만을 사용할 것이다. 한편, 투표자의 선호도를 측정

7) E. Warren Miller, Donald R. Kinder, Steven J. Rosenstone, and the National Election Studi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1992: Pre-and Post-election Survey*(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and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1993); Steven Rosenstone, Donald R. Kinder, Warren E. Miller, and the National Election Studi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1996: Pre-and Post-Election Survey*(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and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1997).

8)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지식을 위해서는 Gerald M. Pomper et al., *The Election of 1992: Reports and Interpretations*(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3), 2장과 5장; James Ceaser and Andrew Busch, *Upside Down and Inside Out: The 1992 Elections and American Politics*(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3), 제4장과 6장; E. Warren Miller and J. Merrill Shanks, *The New American Voter*(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제16장; William Crotty (ed), *America's Choice: The Election of 1992*(Guilford, Connecticut: The Dushkin Publishing Group, Inc., 1993), 제7장과 13장; Gerald M. Pomper et al., *The Election of 1996: Reports and Interpretations*(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7), 제 1장과 5장.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이현우, “경제문제와 정당선택: 미국의 경우 1960-1992,”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2호(1996), pp.343-362; 조성대, “공간이론과 미국 다수후보 대통령선거: 1968, 1980, 1992, 1996년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1호(2003), pp.311-321.

9) Gerald M. Pomp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Pomper et. al.(1993), p.141.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선거 전에 측정한 후보자에 대한 체감수치(thermometer scores)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측정한 체감수치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종 선거결과에 의해서 투표자의 선호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투표자는 대개 승자의 편에 서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록 패자를 선거 이전에 더 좋아했더라도 선거 이후 설문하는 경우 승자한테 훨씬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 맞추어 설문을 사례를 추리면, 단지 537개의 유효한 경우의 수만 남게 된다.<sup>10)</sup>

여기서 전략적 투표는 엄밀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 삼자(three-way) 경쟁에서 투표자가 스스로 제일 선호하는 후보자가 될 것이 확실할 때, 자신의 선호도와 스스로 판단한 주관적인 각 후보자의 승률이 근거하여 자신이 애초에 차선으로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협의의 전략적 투표에 대한 정의는 듀베르제가 내리고 있는 심리적 요소(psychological factor)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이다. 그는 심리적 요소를, 삼자 경쟁을 전제로 하면, “투표자가 두 명의 악인(evils) 가운데 자신이 보기에 더 나쁜 자의 성공을 막기 위해서 덜 나쁜 자에게 자신의 표를 이전하려는 자연스런 경향”이라고 한다.<sup>11)</sup>

이 글에서는 기권한 경우를 전략적 투표로부터 배제한다. 물론 어떤 투표자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기권을 하였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투표란 실제로 투표를 행사할 경우 투표자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또한, 두 번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실제로는 각 선거마다 각 주의 사정에 따라서 투표용지에 세 명 이상의 후보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세 명의 후보자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sup>12)</sup> 다른 말로 하면, 각 선거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최상위 3명이외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경우는 모두 결측값(missing values)으로 처리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전략적 투표의 정의에 따라서, 응답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주에서 페로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경우도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쪽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경우만 고려하고, 두 명이나 그 이상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 경우도 배제한다. 이것은 위에서 정의한 전략적 투표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자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지 단 한 명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나머지 두 명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거나 동일한 정도로 좋아한다면, 앞에서 정의한 바대로 전략적 투표를 행하기 힘들 것이다. 두 명의 후보 간에 선호도가 없는 경우를 배제하면, 3명의 후보를 두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13개의 선호도 배열 중에서 7개가 배제되고 단지 6개의 경우만 남게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클린턴 지지자나 부시 지지자들도 앞에서 정의한 의미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어떤 주에서, 클린턴이나 부시가 3명 중 가장 인기 없는 후보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그 주에 사는 클린턴이나 부시 지지자들은 전략

10) 이 537명 전체의 선호도와 투표 행태에 관한 정보는 부록 1 참조.

11) Duverger(1954), p.226.

12) 미국 대선은 전국 단위로 하는 단일 선거가 아니라 주를 단위로 하는 선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쟁의 기본 단위는 미국 전체가 아니라 개별 주이다.

적 투표를 할 유인(incentive)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선거연구회의 데이터는 그러한 경우를 분석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 결과 여기서는 부시나 클린턴의 지지자에 의한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페로 지지자에 의한 전략적 투표만을 분석한다.

## 2. 군소후보의 쇠퇴에서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와 선호도 변화

이 소절은 단순다수결제에서의 선호도 변화와 전략적 투표의 규모 및 변화를 다룬다. 패널 응답자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straightforward) 페로 지지자 57명 중 21명(37.5%)이 1992년에 전략적 투표를 하여,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반면에, 1996년에는 지지자의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지자 9명 중 겨우 1명(11.1%)이 전략적 투표를 하였다. 비록 1996년의 페로 지지자 집단의 수가 유효한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선거와 비교할 때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는 매우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통계학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 작아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들지만, 이들 9명이 유의미한 페로지지자들이고 이들의 대표성이 올바르다면, 전략적 투표의 비율이 두 번째 선거에서 줄어든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표 1> 1992년과 1996년 페로 지지자의 선호도 구성과 전략적 투표

### <1992년>

선호도/투표결과	제1선호후보 투표	제2선호후보 투표	제3선호후보 투표	합계(명)
페로 P 클린턴 P 부시	18(17*)	12	0	30
페로 P 부시 P 클린턴	18	9	0	27
합 계	36	21	0	57

\*한 명의 응답자는 자신의 주에서 페로가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였기에 최종계산에는 제외한다.

### <1996년>

선호도/투표결과	제1선호후보 투표	제2선호후보 투표	제3선호후보 투표	합계(명)
페로 P 클린턴 P 돌	6	0	0	6
페로 P 돌 P 클린턴	1	2	0	3
합 계	8	1	0	9

참고: 두 표 모두에서, "P"는 엄격한(strict) 선호도를 말한다. 일례로, "페로 P 클린턴 P 돌"이라는 선호도를 가진 투표자는 클린턴보다는 페로를 확실히 좋아하지만 돌보다는 클린턴을 좋아한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자에 따라서 사소하거나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질지 모르겠지만, 듀베르제의 규칙에 관한 문헌에 비추어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략적 투표를 하는 페로 지지자의 비율이 통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듀베르제 법칙의 심리적 요소에서 예측하는 것



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듀베르제가 심리적 요소의 효과를 이야기 하면서 행태의 변화와 선호도의 변화 간에 뚜렷한 구분을 짓고 있지 않지만, 단순히 해석하면 선호도를 고정할 때 전략적 투표의 비율이 통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과 반대로, 저자가 보기에는 전략적 투표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페로가 첫 번째 대통령선거에 도전하여 실패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선호도를 변경하지 않은 페로 지지자들은 그의 골수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승리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할 가능성이 많고, 그만큼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른 페로의 득표율 하락은 전략적 투표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전략적 투표율 자체는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페로의 득표율 하락은 그에 대한 선호도 자체의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제 1 선호도가 페로임이 분명한 패널 응답자의 비율은 1996에 급격히 줄어들었다.<sup>13)</sup> 구체적으로 보면, 부록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무관한(indifferent) 선호도를 가진 응답자를 포함한 전체 패널 응답자 537명 중 1992년에는 그 비율이 14.7%였지만, 1996년에는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다른 두 후보보다도 한 후보를 분명히 선호하는 응답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두 선거 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1992년에는 페로, 부시, 클린턴 중 한 명을 뚜렷하게 다른 두 명보다 선호한 응답자가 87%였고, 1996년에는 페로, 돌(Bob Dole), 클린턴 중 어느 한 명을 뚜렷하게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88%였다. 이렇게 뚜렷한 선호도가 가진 응답자의 전체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독 페로를 선호하는 집단만이 1996년에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더 희박하여진 것이 그 한 가지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도 아닌 무당파주의자들(independents) 혹은 뚜렷한 지지자가 없는 투표자 또는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투표자의 수가 1992년에 일시적으로 증대하여 페로가 많은 표를 얻었고 이들이 다시 1996년 선거에서는 빠지는 바람에 제3후보인 페로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페로의 지지자의 증가와 감소는 예전에는 분명한 선호도가 없던 사람들이 분명한 선호도를 새롭게 형성하였거나 분명한 선호도를 가진 이들이 선호도를 가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분명하게 선호하던 사람들이 다른 후보를 분명하게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연구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두 선거 모두에서 동일한 자연인들을 설문한 결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 우리는 많은 페로 지지자들이 그의 첫 번째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 단순히 그한테 표를 안 주기로 작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한 선호도 자체를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거제도가 투표자의 행태만이 아니라 그들의 선호도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제도론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선호도가 변경된 것을 미

13) 제1선호도가 페로임이 분명한 응답자란 페로 P 클린턴 P 부시(또는 돌), 페로 P 클린턴 I 부시(또는 돌), 페로 P 부시(또는 돌) P 클린턴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말한다.

국식 선거제도에서의 페로의 낙선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페로 자신의 선거운동 전략이나 열정과 다른 대통령 후보의 인기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치지도자가 거의 1/5에 가까운 대중의 표를 전국적으로 획득한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8%에 불과한 표를 얻게 된 것은 소선거구제적인 속성을 띄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배타성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론적인 주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도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두 번 이상 연속적으로 출마한 모든 군소 후보자의 지지율이 후보개인의 초기 지지율이나 경제상황을 포함한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후속 선거에서 급락하였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궁극적으로 선거제도가 변하는 경우 지지율이 변한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직접적인 증명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접적으로 제도론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페로 진영의 선거운동의 강도(intensity), 클린턴 정부의 업무수행능력 등과 같은 다른 여러 변수들도 페로 지지자의 비율이 1996년에 급격히 하락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변수들로는 표 2에서 보여주는 페로 지지자들의 선호도 변화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힘들다. 즉, 왜 1992년에 클린턴을 차선(second-best)으로 좋아했던 페로 지지자의 대다수가 1996년에 실제로 선호도를 변경할 때, 클린턴을 돌이나 페로보다 최고로 선호하게 되고, 1992년에 부시를 차선으로 좋아했던 페로 지지자들은 1996년에 부시의 계승자인 둘을 페로나 클린턴보다 최고로 좋아하는 후보로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하기 힘들다. 바꾸어 말하면, 페로 지지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선호도를 변경할 때, 그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차선으로 좋아하던 후보나 그 계승자에게로 선호도를 변경하였다. 만약에 이들의 선호도 변화가 경제적 상황 등을 포함한 클린턴 대통령의 업적이나 인기도 등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 클린턴 쪽으로 선호도 변화가 치우쳐야만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92년에 페로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19%의 표를 얻고 클린턴은 43%를 얻은 반면에, 1996년에 클린턴은 50%와 페로는 8%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혹자는 클린턴의 2차에 걸친 연속적인 승리와 페로의 연속적인 패배 간에 또는 클린턴의 승리와 중도성향의 투표자들의 움직임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지 모른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추정은 일리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표2의 페로지지자의 선호도 변화의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러한 추정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달리 페로지지자들의 선호도 변화는 클린턴 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sup>14)</sup> 오히려 <표 2>에 따르

14) 이러한 발견은 1992년 페로의 등장이 부시와 클린턴의 승리를 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들과 일맥상통한다. "How the Nation Voted," *New York Times*, November 5 1992, B4; Pomper(1993), p.142; Peter F. Nardulli and Jon K. Dalag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92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Crotty(1993), pp.155 and 159. 참고로 덧붙이자면, 미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인 정치판의 재편(realignment)이나 탈구조(dealignment)이나하는 분제는 이 글의 관심사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1992년 선거를 기존의 재편과

면, 페로가 1992년에 커다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실과 동일한 선거제도 아래서는 다음번에도 그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1992년 지지자들은 그 때 차선으로 좋아하였던 후보나 정당을 그 다음 선거에서 가장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2〉 1992년 페로 지지자의 1996년 선호도 변화의 방향성

1992		1996	
페로 P 클린턴 P 부시	33명	명확한 페로 지지자 명확한 클린턴 지지자 명확한 돌 지지자 그 외	3명 22 6 2
페로 P 부시 P 클린턴	34명	명확한 페로 지지자 명확한 돌 지지자 명확한 클린턴 지지자 그 외	6명 20 4 4
페로 P 부시 I 클린턴	12명	명확한 페로 지지자 명확한 클린턴 지지자 명확한 돌 지지자 그 외	2명 7 3 0
합계	79명		79명

참고: 여기서 대문자 "I"는 두 명의 후보 간에 무관한 선호도(indifference)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과 달리 표2에서는 유권자가 기권하였거나 페로, 부시, 클린턴 이외의 후보에 투표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페로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가 단순다수결제도의 배타성에 기인한다는 앞서서의 주장을 추가로 뒷받침하려면, 선호도 변화와 전략적 투표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될 것이다. 이 역시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선호도를 보다 용이하게 바꾼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 변화는 어떤 공통의 요소, 즉 제도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전략적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선호도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둘 간에 상관관계가 수립된다면 그 둘은 뭔가 공통의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첫 선거에서 전략적 투표를 한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2차 선거에서는 선호도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보다 논리적인

탈구조의 시각에서 해석한 문헌을 보려면, Ceaser and Busch(1993), pp.172-180; Nardulli and Dalager(1993), pp.155-166; Everett Carl Ladd, "The 1992 Vote for President Clinton: Another Brittle Manda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8-1 (Spring 1993), pp.1-28; David G. Lawrence, *The Collapse of the Democratic Presidential Majority: Realignment, Dealignment, and Electoral Change from Franklin Roosevelt to Bill Clinton*(Boulder: Westview Press, 1996), pp.139-143 참조.

로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선호도 변화가 제1차 선거에서 차선의 선택이었던 후보에게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표1에서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 변화 간의 상관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의 의문은 다음과 같다. 1992년에 전략적으로 투표했던 적이 있던 페로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은 페로 지지자들보다도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쉽게 변경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2년 전략적 투표와 1996년 페로로부터의 이탈 즉 선호도 변경 간에 존재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efficient of correlation)를 측정해보면 그 값이 0.36이다.<sup>15)</sup> 양측검증을 해보면 이 상관계수는 0.05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 변화 사이에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비록 강하지는 않더라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전략적 투표를 하기를 좋아하는 투표자들이 그렇지 않은 투표자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자체를 변경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앞에서 본 선호도 변화의 방향성과 함께 놓고 보면, 선호도 변화의 시간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992년에 페로, 클린턴, 부시 순으로 선호하는 투표자가 단순다수결이라는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클린턴한테 전략적으로 투표하였다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처럼, 그가 1996년에는 자신의 선호도 구조 자체를 바꾸어 클린턴을 제일 선호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페로 지지자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전략적 투표가 두 번째 선거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저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투표율의 변화와 더불어, 두 번째 선거에서는 제3의 군소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자료가 제한적이고 미비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선거제도가 투표자들로 하여금 다른 투표 전략을 구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서 투표자의 기본적인 선호도 자체의 변화를 어느 정도 유도함으로써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기존의 듀베르제 법칙에 나오는 기계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또는 전략적 투표) 이외에도, 선거제도는 개인의 선호도 변화라는 인과과정을 통하여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선호도 변화가 오로지 제도적 요인 때문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선호도 변화의 여러 요인 중에는 제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는 선호도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뿐이다.

15) 페로로부터의 이탈(defection) 변수를 여기서는 이항변수 즉, 두 개의 값만을 가지는 변수로 상정하였다. 첫째, 페로 지지자들이 1992년에 페로, 부시, 클린턴 순으로 좋아하였고, 1996년에 여전히 페로를 그대로 가장 좋아하였을 때, 그들의 변수 값은 "0"으로 처리하였다. 다른 한편, 그들의 최상위 선호 후보가 1996년에 돌로 바뀌었을 때, 그들의 변수 값은 "1"로 처리하였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둘째로 페로 지지자가 1992년에는 페로, 클린턴, 부시 순으로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고 1996년에는 여전히 페로를 가장 선호하였다면, 그들은 측정값 "0"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1996년에 선호도를 바꾸어 클린턴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다른 모든 경우의 수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탈 변수란 정확하게는 1992년에는 페로를 가장 선호하였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선호도를 바꾸어 1992년에 차선이었던 후보를 이제는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Ⅲ. 결론: 요약과 함의

이 글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듀베르제의 법칙이 성공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전략적 투표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방법론적으로 보면 게임이론적인 도구의 사용은 전혀 없지만,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한 번 재검토하여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다른 제도주의자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자들과의 논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제도와 선호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거제도와 듀베르제의 법칙에 관한 기존의 문헌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던 문제는 선호도 변화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단순다수결제라는 선거제도는 행태의 변화인 전략적 투표를 야기하고 이 결과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행태의 변화만이 아니라 선호도 변화도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기존의 전략적 투표 또는 듀베르제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선호도변화와 행태변화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인과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뚜렷이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선호도 문제를 항상 괄호로 묶어버리거나 가정을 해버리고 그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많은 흥미 있는 문제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처럼, 선호도 변화와 기존의 선호도를 전제로 한 전략적 투표를 분리하여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군소후보의 쇠락과 정당체계 변화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일어나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호도 변화 그 자체가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동일한 자연인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선거에 걸쳐서 설문한 결과 얻은 미국 패널데이터에 근거하여, 단순다수결제 아래서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 변화가 어떻게 통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 결과 우리는 미국선거제도가 주는 군소후보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군소후보 지지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유인을 갖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호도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전략적 투표를 자체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반해서 선호도를 바꾸는 군소후보 지지자의 비율은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발견은 전략적 투표이외에 별도의 인과과정을 설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듀베르제 법칙의 심리적 요소에서 예측하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도 의미가 있다. 듀베르제가 심리적 요소의 효과에서 전략적 투표의 비율이 통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반대로, 실제로 전략적 투표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페로가 첫 번째 대통령선거에 도전하여 실패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선호도를 변경하지 않은 페로 지지자들은 그의 골수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승리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할 가능성이 많고, 그만큼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또한 페로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모두 단순다수결제도 때문인 것만은 결코 아니지만, 그 선거제도 아래서 페로의 당선 확률이 낮은 것이 결국은 그에 대한 선호도의 저하를 가져다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 선호

도 변화의 방향성과 (2) 선호도 변화와 전략적 투표의 통시적 상관관계를 논하였다.<sup>16)</sup> 클린턴 정부의 업적이나 경제상황 등을 포함한 다른 비제도적 요인들은 페로 지지자의 선호도 변화가 1996년에 클린턴 쪽으로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1992년에 전략적 투표를 한 사람들은 그 다음 선거에서 선호도 변화를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투표와 선호도 변화의 상관관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모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3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제3의 요소가 전략적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단순다수결제가 갖는 군소후보에 대한 배타성 때문이라고 보고, 이 요인이 선호도 변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경험적으로 단순다수결제도가 처음부터(우리의 경우에는 1992년에) 선호도 변화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선호도의 형성에 개입하였는지 아닌지 모른다. 이 글도 역시 처음에는 선호도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시작하였다. 즉, 과거 시점 1992년에 야기된 선호도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 다음 시점인 1996년 시점의 선거에서 일어난 대규모 선호도 변화를 고려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군소후보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하여 선호도 형성이 1992년 첫 번째 선거에서도 비록 그 규모는 다를지라도 또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후보자의 저조한 당선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자의 선호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입증하면 이 글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주어진 자료로는 이 문제를 분석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선호도변화가 설명력을 갖는다면, 선호도 자체를 대체로 가정하고 시작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은 현실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무엇을 설명모델 속에 넣고 무엇을 설명모델 밖의 기본 가정으로 두고서 시작할 지는 연구자의 연구 관심사와 연구 관점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선호도를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항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다 현실적이고 온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선호도와 행태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에 편입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글은 시사하고 있다.

16) 만약에 선거제도가 단순다수결제도가 아니고 결선투표제였다면 페로의 지지자들은 선호도를 변경할 이유가 적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1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을 가지고 결선투표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록 1] 1992년과 1996년 미국 대선에서의 전체 선호도와 투표 결과(패널 데이터)

<1992>

투표결과 선호도	선호도 열 첫 번째 후보에 투표	선호도 열 두 번째 후보에 투표	선호도 열 세 번째 후보에 투표	기권, 그 외 후보에 투표	합 계
페로 P 클린턴 P 부시	18	12	0	3	33
페로 P 클린턴 I 부시	7	1	1	3	12
페로 P 부시 P 클린턴	18	9	0	7	34
부시 P 페로 P 클린턴	53	5	1	8	67
부시 P 페로 I 클린턴	30	1	0	6	37
부시 P 클린턴 P 페로	55	5	7	11	78
클린턴 P 페로 P 부시	71	6	1	13	91
클린턴 P 페로 I 부시	29	2	0	3	34
클린턴 P 부시 P 페로	59	2	2	20	83
부분 합계					469
페로 I 부시 P 클린턴	5	6	0	2	13
페로 I 클린턴 P 부시	7	11	0	5	23
페로 I 클린턴 I 부시	1	2	3	1	7
클린턴 I 부시 P 페로	8	9	1	7	25
총 합계					537

<1996년>

투표결과 선호도	선호도 열 첫 번째 후보에 투표	선호도 열 두 번째 후보에 투표	선호도 열 세 번째 후보에 투표	그 외 후보에 투표, 기권, 무응답	합 계
페로 P 클린턴 P 돌	6	0	0	6	12
페로 P 클린턴 I 돌	1	0	1	2	4
페로 P 돌 P 클린턴	2	1	0	1	4
돌 P 페로 P 클린턴	79	0	0	14	93
돌 P 페로 I 클린턴	26	0	0	6	32
돌 P 클린턴 P 페로	34	2	1	9	46
클린턴 P 페로 P 돌	56	3	1	27	87
클린턴 P 페로 I 돌	33	1	0	12	46
클린턴 P 돌 P 페로	99	4	2	44	149
부분 합계					473
페로 I 돌 P 클린턴	2	6	0	8	16
페로 I 클린턴 P 돌	2	3	0	6	11
페로 I 클린턴 I 돌	3	1	3	4	11
클린턴 I 돌 P 페로	8	5	1	12	26
총 합계					537

## 참고문헌

- 강원택.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수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2호(1998).
- 김성철. “역사적 및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과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제33권 2호(1999).
- 송근원. “선거잇슈와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들.”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1』 서울: 나남, 1993.
- 안순철. “한국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행태.”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2호(1996).
- 이정전 외, 『공공선택의 이론과 응용』 서울, 봉명, 2006.
- 이현우. “경제문제와 정당선택: 미국의 경우 1960-1992.”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2호(1996).
-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1999.
- 조성대. “공간이론과 미국 다수후보 대통령선거: 1968, 1980, 1992, 1996년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1호(2003).
- \_\_\_\_\_.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당 후보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2호(2000).
- 황수익. “정치학과 합리적 선택 접근법.” 『한국정치학회보』 제19권(1985).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Phil Paolino, and David W. Rohde. “Sophisticated Voting in the 1998 Presidential Primar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992).
- Alt, James and Kenneth A. Shepsle (eds).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Bates, Robert H. (ed).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Cain, Bruce E. 1978. “Strategic Voting in Britai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1978).
- Caparoso, James and David Levin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Ceaser, James and Andrew Busch. *Upside Down and Inside Out: The 1992 Elections and American Politics*.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3.
- Choi, Jungug. “Strategic Voting and the Effective Number of Presidential Candidates



-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7-4(December 2003).
- Cox, Gary W.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Craven, John. *Social Choice: A Framework for Collective Decisions and Individual Judg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Crotty, William (ed). *America's Choice: The Election of 1992*. Guilford, Connecticut: The Dushkin Publishing Group, Inc. 1993.
-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s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Methuen & Co. Ltd., 1954.
- Galbraith, John W. and Nocol C. Rae. “A Test of the Importance of Tactical Voting: Great Britain, 1987.”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1989).
- Hsieh, John Fuh-Sheng, Emerson Niou, and Philip Paolino. “Strategic Voting in the 1994 Taipei City Mayoral Election.” *Electoral Studies* 16(1997).
- “How the Nation Voted,” *New York Times*, November 5, 1992.
- Jones, Mark P. “Electoral Laws and the Effective Number of Candidates in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1(1999).
- Johnston, R. J. and C. J. Pattie. “Tactical Voting in Great Britain in 1983 and 1987: An Altern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1991).
- Ladd, Everett Carl. “The 1992 Vote for President Clinton: Another Brittle Manda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8-1 (Spring 1993).
- Lawrence, David G. *The Collapse of the Democratic Presidential Majority: Realignment, Dealignment, and Electoral Change from Franklin Roosevelt to Bill Clinton*. Boulder: Westview Press, 1996.
- Miller, E. Warren, Donald R. Kinder, Steven J. Rosenstone, and the National Election Studi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1992: Pre-and Post-election Surve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and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1993.
- Miller, E. Warren and J. Merrill Shanks.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Morrow, James D.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Mueller, Dennis C. *Public Choice I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Nardulli, Peter F. and Jon K. Dalag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92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Crotty(1993).

- Niemi, Richard G., Guy Whitten, and Mark N. Franklin. "Constituency Characteristic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actical Voting in the 1987 British General Elec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1992).
- Ordeshook, Peter. C. *Game Theory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The Emerging Discipline of Political Economy." in James E. Alt and Kenneth A. Shepsle (eds.),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Pomper, Gerald M.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Pomper et. al., *The Election of 1992*.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3.
- Pomper, Gerald M. et al. *The Election of 1992: Reports and Interpretations*.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3
- Pomper, Gerald M. et al. *The Election of 1996: Reports and Interpretations*.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7.
- Rae, Dougla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 Reed, Steven R. "Structure and Behavior: Extending Duverger's Law to the Japanese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1991).
- Riker, William H. *Liberalism against Populism: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heory of Democracy and the Theory of Social Choice*. Prospect Heights, Illinois: Waveland Press, Inc., 1982.
- Rosenstone, Steven, Donald R. Kinder, Warren E. Miller, and the National Election Studies.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1996: Pre-and Post-Election Surve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and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1997.
- Shepsle, Kenneth and Mark S. Bonchek. *Analyzing Politics: Rationality, Behavior and Institu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 Taagepera, Rein and Matthew S. Shugart,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Preference Change, Strategic Voting, and the Abandonment of Third Place Candidates

Choi, Jungug  
(Konkuk University)

The literature on strategic voting seldom addresses the issue of longitudinal change in individual voters' preferences by taking individual preferences for given. Plurality rule is widely known to induce voters to act strategically, which in turn affects a political party system. Nonetheless, it is still unknown whether the electoral system is responsible not just for such behavioral change but also for preference change.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whether plurality rule brings about preference change as well as behavioral change over time, using panel data from the 1992 and 1996 US presidential elections. It finds that while supporters of third-placed candidates have a strong incentive to engage in strategic voting in a short term, they are more likely to rearrange their best preferences over a long term; this long-term effect is more accountable for the abandonment of third place candidates under plurality rule.

투 고 일 : 2006년 5월 4일  
심 사 일 : 2006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 2006년 6월 26일